

이원철과 한국 천문학(그의 탄생 100주년을 당하여)

나일성

연세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이원철(李源喆 1896~1963, 영어 표기는 David W. Lee)은

(1) 한국이 낳은 최초의 현대 과학자이다. 박사 학위를 받은 연대순으로 몇사람을 보면 다음과 같다. 팔호안의 연도는 학위를 받은 해이다.

이원철(1926, 천문학, 미쉬간 대학), 조용천(曹應天, 1928, 물리학, 인디애나 대학), 이태규(李泰圭, 1931, 화학, 경도제대), 최규남(崔奎南, 1933, 물리학, 미쉬간 대학)

(2) 많은 분야에서 개척자 역할을 했다.

- ① 연희전문학교 교수(1926)
- ② 일제하에 서울 YMCA를 통해 과학 보급운동을 전개
- ③ 중앙관상대(현 중앙기상대) 창설과 더불어 초대 대장
- ④ 인하공과대학(현 인하대학교) 초대 학장

이원철 박사의 67년의 삶은 위와 같이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위대한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

참고 문헌

나일성, 1976, "李源喆 박사와 η Aquilae", 한국천문학회보, 제1호.

나일성, 1990, "이원철론", 계간 진리·자유, 4권, 96.

나일성, 1990, "李源喆",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제18권, 132.